

2026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1. 8.(목) 16:00 피스앤파크컨벤션

인 사 말 씀

'26. 1. 8.(목)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붉은 말은

뜨거운 열정과 강한 추진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기조를

노동과 생명 존중으로 대전환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어,

신뢰자산 구축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임금체불액은 임금수준 증가 등에 따라 계속 커지고 있으며,
20·30 70만 쉬었음. 즉, 준비중인 청년들의 취업애로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저출생·고령화, AI 기술변화, 기후위기 등
유례없는 큰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거센 변화와 도전의 위기를
성장의 도약으로 발판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고용노동부는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와 제33조가 명령하는 바와 같이,
국민들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입증하겠습니다.**

과거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대어
속도만 쫓던 성장 모델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낡은 방식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키웠고,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돈 떼이거나,
차별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일터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시장의 격차해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기회의 격차 해소가 중요합니다.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준비중 청년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들의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발굴·접근·회복
단계별로 세심히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노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함께 다가가겠습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노동현장 위험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이 닿지 않는
작은 사업장으로의 정책길목을 확보해 촘촘히 지원하고,
노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라는 절도행위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현장 관행을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정이 첫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진정성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현장을 바꾸어나가는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노사정이 함께 점검해나가겠습니다.

개정노조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합리적인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마련해 지원하겠습니다.
개정노조법이 법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동있는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속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권익보호에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법입니다.
모법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개별법률과 제도로 구체화해 변화를 싹틔우겠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가 되도록
모두의 AI를 위한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AI+역량業^{UP} 프로젝트로 직업훈련을 촘촘히 설계하고,
로드맵을 마련하여 일자리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다가올 위기가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그러해야 합니다.
노·사 각각의 대응도, 정부만의 노력으로도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나약함에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새해에는 반드시 성과로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사정이 모인 이 자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의 손을 맞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